

## News

### 10일 이후 전세대출받고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갚아야

연합뉴스

금융위,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마침에 따라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발표  
핵심은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를 포함한 것...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3억원으로 축소

### 라임 100% 반환 27일까지 결정하라... 판매사 법률 검토

파이낸셜뉴스

금감원 분조위가 전날 우리·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판매사들에게 결정문을 통지함에 따라 이를 접수한 판매사들은 27일까지 수락여부를 결정  
하지만 판매사들은 운용사 상품을 검증할 권한이 없는데도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에 반발...이사회에서 배임 등 문제가 없는지 법률검토에 나설 예정

### KB금융, 신종자본증권 발행...4000억원으로 증액

뉴시스

KB금융은 신종자본증권 발행총액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정정한다고 공시..."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총자본비율은 발행 이전 대비 0.15%포인트 상승한 14.23%, 기본자본비율은 발행 이전 대비 0.14%포인트 올라 13.43%가 될 것으로 예상

### 미 보험사 올스테이트, 내셔널 제너럴 4.8조원에 인수

연합뉴스

올스테이트는 내셔널 제너럴 이사회가 회사 매각을 승인했다면서 내년 초쯤 인수작업 마무리...인수 첫해부터 회사의 ROE와 조정 주당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지난 4월 올스테이트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운전량이 40~55% 감소한 데 따라 6억달러 규모의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발표

### 보험도 '마이데이터' 시대? ...의료법에 막혀 반쪽짜리

디지털타임스

금융위, 다음달 5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 대한 법률안을 발표하면서 각 금융사별로 마이데이터 사업 접수를 받을 예정...보험사는 11곳(생명보험사 8곳, 손해보험사 3곳) 신청  
현재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개인의 인적사항과 기본적인 질병정보...의료법에 가로막혀 의료정보를 활용한 사후 관리가 어렵다는 분석

### 옵티머스 '공방'... 예탁원 '종목명 변경없어' vs NH "지시 따랐다"

머니S

NH투자증권, 사무수탁기관인 예탁원이 옵티머스의 지시에 비상장기업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 변경했다고 주장...반면 예탁원, 종목명 변경해 준 사실이 없다는 입장  
NH투자증권, "투자금 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탁은행과 사무수탁사 과실에 집중하고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에 법적인 책임을 지우겠다"

### 늘어난 '빚투'...대형 증권사 신규 대출 중단

뉴시스

금투협회, 지난 7월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신용융자 잔액은 12조7,03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올해 1월 초와 비교하면 약 3조2,324억원 늘어  
미래에셋대우는 주식·펀드 등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예탁증권 담보융자 대출을 14일까지 일시 중단...한국투자증권은 예탁증권 담보융자 신규 대출 일시 중단

###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 검토...운영주체는 예보?

디지털타임스

사모펀드의 자산회수 등 사후처리 문제가 금융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면서 '페어펀드(Fair Fund)' 제도 도입이 주목...이르면 8월 제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  
금융위를 중심으로 페어펀드 제도 도입을 검토 중...페어펀드 도입을 위해서는 과징금 재원 마련 방안이 관건...미국 사례를 보면 불공정거래와 불완전판매로 인한 과징금이 재원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